

《레안드로 에를리치: 그림자를 드리우고》

전시 연계 어린이 온라인 프로그램
'탑과 그림자 이야기'

☺☺ 보호자를 위한 꿀팁! 모음 ☺☺

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술관에서의 대면 수업이 어려운 시기에, 북서울미술관은 어린이 친구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기 위해 영상 교육을 준비했어요. 집 안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러분을 위해, 집 안이나 주변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고, 어느 집에서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재료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.

지금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는 《레안드로 에를리치: 그림자를 드리우고》라는 전시를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(6월 14일까지 휴관) 작가는 이번 북서울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며 한국의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, 그 중 하나가 무영탑 설화에 영감을 받아 구상한 <탑의 그림자>입니다.

<탑의 그림자>에서 작가는 물 아래 그림자가 있으리라는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고 똑같은 모양의 탑을 뒤집어서 붙여 놓았습니다. 작가가 기발한 발상을 통해 그림자를 독특하게 표현했듯이,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친구들도 탑과 그림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제안합니다.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탑, 혹은 건물이나 도로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주변 환경들도 얼마든지 색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사고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.

그럼, 아이와 함께 보다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합니다!

①①① 꿀팁 # 1

나만의 아이디어로 탑 주변을 꾸며보기!

— 전시장에서는 탑이 연못 위에 떠있을 뿐, 구체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. 학습지에서는 아이들의 상상을 통해 탑을 다양한 장소에 놓을 수 있어요!

— 주변에 태양과 행성들을 그려 탑이 우주에 떠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? 아니면, 고층 건물들을 그려넣어 복잡한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탑을 상상해 보아도 좋겠어요.

— 혹은 탑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학습지의 특성을 살려, 두 가지 배경을 혼합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영상에서처럼 '사막-정글,' '여름-가을,' '낮-밤,' '아침-노을' 등을 그리면 어떨까요? 왼쪽엔 우리집, 오른쪽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(해변, 동물원, 놀이동산 등등)들을 상상해 그려도 좋아요. 아니면 영상에 나온대로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를 그려봐도 좋겠어요.

— 마찬가지로 학습지 아래 부분도 연못이 아닌 다른 장소로 꾸며보세요. 파도치는 바다, 드넓은 강, 혹은 수영장은 어떨까요?

①①② 꿀팁 # 2

다양한 장소에 가서 탐의 모습 바꾸어보기!

- 집 안에서 그림을 완성했나요?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볼게요!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아요. 집 주변에서도 다양한 색상과 질감인 장소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. 탐을 어떤 색으로 바꿀지 생각하다보면,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곳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.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주변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!
(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야 하니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다녀 주세요.)
- 여러 장소들에서 탐의 색이 바뀔 때마다 사진으로 기록해보세요. 사진을 모으면 주변 환경과 탐, 아이가 그린 그림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!



①①② 꿀팁 # 3

아이의 그림을 온라인 전시하기!

- 그림을 온라인에 자랑해주세요! 아래 해시태그를 달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친구들의 작품들을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#탐과그림자이야기 #BukSeMAKIDS #BukSeMAKIDS_온라인
-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보세요. 다른 친구들은 탐 주변에 어떤 장소들을 상상해 그렸는지 감상하고, 우리 아이의 작업은 어떤 점에서 개성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